

스님들의 장터였던 승시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9월 1~5일 동화사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승시축제의 모습

팔공산 장터에서는 스님들이 물건을 판다

9월 1~5일, 팔공산 승시 축제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청빈한 삶을 살았던 스님들이 물물교환을 위해 마련한 승시(僧市)를 현대적으로 재연한 '팔공산 승시 축제'를 9월 1~5일 동화사 일대에서 펼친다. 특히 올해는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와 맞물려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승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번성했던 스님들의 산중장터로 스님들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사원에서 생산한 물자를 유통시키는 장터를 의미한다.

대구시에는 약령시 한방축제 외에는 전국적 인지도의 축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최고의 문화관광 자원인 팔공산과 동화사를 연계한 승시 축제는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불교 및 전통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승시는 9월 1일 오후 6시 동화사 봉서루 앞 특설무대에서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다. 전통문화와 먹거리 ·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승시마당과 문화마당, 공연마당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승시마당에서는 불교미술 체험, 사찰 물품 제작시연, 차명상, 소금공양 행렬 재현 등 스님들의 일상과 신도 신행 체험공간이 펼쳐진다. 또한 전래 문화와 공예 시연, 사찰 음식 및 약재를 전시하는 체험관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승시마당은 '무소유'의 승가 전통을 되살리고 승시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전통 장터를 재현해 스님들이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승시 물품장터를 운영한다. 설법전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큰 스님 물품 경매 행사도 진행된다.

문화마당에서는 전래의 부처님 사리 이운 행렬을 재현하고, 통일대불전 특별전시실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건봉사 부처님 치사리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또 승시축제 기념 기획특별전 '세속에서 성의세계로'에서는 거란 침입 때 소실된 초조대장경 1차 복간본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매일 저녁 열리는 평화의 등빛터널 및 장엄등 전시회는 50여개의 대형 전통 장엄등과 3000여개의 전통등으로 동화사 전역을 1만개의 등으로 장엄할 예정이다. 장엄등 전시회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시민들에게도 대규모 장엄등의 화려한 모습은 색다른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번성
물자조달 및 사원 생산물 유통

큰 스님 물품 경매 다문화가정 지원
건봉사 부처님 치사리 일반 첫 공개

공연마당에서는 개막식과 더불어 불교tv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개막공연과 승시 기간 동안 국악, 7080 가수공연, 락밴드, 퓨전, 트로트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매일 오후 2시에는 날뫼북춤과 농악단이 출현하는 장터 공연이 열리고, 3~4일 오후 5시에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댄스그룹의 공연이 펼쳐진다.

승시 축제는 지난해에도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전해진 고창 선운사의 육지에서 소금 굽는 법, 부안 죽염 장인 효산 스님의 죽염 만들기, 대구 수도암의 연밥 만들기 등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구전으로만 알려진 승시의 구체적인 문헌 자료를 모으는 연구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해 승시 축제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승시가 실제로 열렸음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됐고 특히 김태형 前 관문사 성보박물관 학예사가 조선왕조실록과 정시한의 산중일기 등에서 승시의 정황 증거를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축제 추진단은 '팔공산 승시 축제'가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고 다양성과 고유성이 공존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시 축제 추진단 관계자는 "팔공산 승시는 지역의 훌륭한 문화자원이며 문화컨텐츠다. 한국문화의 독창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 재미와 고유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승시의 유래

승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번성했던 스님들의 산중장터다. 이곳에서는 스님들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사원에서 생산한 물자를 유통시키는 장(場)을 의미한다. 사찰마다 전해지는 전통 특산품을 다른 사찰 물품들과 교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승시'가 열렸고, 중국에는 '묘시'가 열렸다.

민족의 영산에 깃든 약사여래 근본도량

올초 종교평화 대화 '화제'
초조대장경 복원 일반 공개

동화사는 민족의 영산으로 꼽히는 팔공산에 위치한 약사여래 근본도량이다. 올해 초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전반의 관심이 동화사에 집중됐다. 개신교의 불교폄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사와 신학자가 만나 종교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2011 초조대장경 천년 밀레니엄 릴레이 토크'가 2010년 12월 31일 대구 동화사를 시작으로 1월 5일까지 부산 해운정사,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동화사에서 1월 1일 신년 법어와 초청 강연을 가졌다. 진제 스님과 니터 교수는 종교간 평화 없이는 국가간 평화도 존재할 수 없다며 종교 평화의 중요성과 모든 종교가 머리를 맞대고 사람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동화사는 또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식을 3월 19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봉행했다. 1000년 전 거란의 침입으로 사라진 초조대장경을 복원해 부처님께 봉안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증명법사 진제 스님은 "고려 초조대장경 중 100권을 1차로 복간해 봉정법회를 마련했다. 이는 다시 한 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발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초조대장경 복원은 불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경축해야 할 일이다. 불교의 사상과 문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무한 동력이 민족 문화에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밝혔다.

동화사는 삼장탱(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7호) 모사본 점안법회를 대웅전에서 4월 26일 봉행했다. 삼장탱이란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각 권속들을 한 화폭위에 표현한 그림으로 수륙재의 한 부분을 형상화한 것이다. 모사에는 금륜불화연구소 손광석 대표가 참여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표자들이 직접 방문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조환길 천주교 대구교구장 등 대표단은 주지 성문 스님을 예방하고 천주교회의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올레길 걷기가 열풍인 가운데 동화사도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대구 올레길 걷기 '동화사의 보물을 찾아라'를 개최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팔공산여가문화센터와 함께 참여한 100여명의 시민들은 대구 올레를 통해 팔공산과 동화사가 불자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모두의 지역 명소임을 재확인했다.

인재불사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화사는 종단 교육원으로부터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을 인가받아 반월당 보현사에 4월 5일 개원식을 열었다. 대학원은 선어록과 대승경전 등 한문불전을 전통 수업방식인 논강을 통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강의를 펼친다. 종단의 대강백 스님들이 참여해 2년 교과과정으로 현재 강의가 진행 중이다.

동화사는 제9교구 본말사들의 민족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4월 1일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전에서 열었다. 이날 주지 성문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대구 · 경북 불자들에게 민족문화 수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결사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동화사는 다양한 활동으로 불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동화사 항공 촬영 모습

/사진제공=동화사

